

# 독도를 사수하라! 100일간의 독도 홍보 및 체험 활동

|         |            |
|---------|------------|
| 접 수 번 호 | 기재하지 마시오   |
| 학 교 명   | 명신여자고등학교   |
| 동아리(팀)명 | Near Korea |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Near Korea세대는 지금까지 세계인들이 한국을 일본 옆에 또는 중국 옆에 있는 나라로 인식했지만 앞으로는 명신 Near Korea 동아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중심국가와 세계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국가로 만들어 갈 세대를 말한다. 이에 부응하여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협력학교로 선정되어 독도 역사 바로 알리기 체험활동 등을 통해 Near Korea세대에 주인공이 되어 세계 속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 변경 전

| 순번 | 성 명   | 학년 | 동아리(팀) 내 역할             |
|----|-------|----|-------------------------|
| 1  | 한 유 정 | 1  | 독도 관련 서적 설명             |
| 2  | 강 다 술 | 1  | 내용 확인 퀴즈 담당             |
| 3  | 안 서 경 | 1  | 계획 세우기, 내, 외국인에게 인터뷰 요청 |
| 4  | 장 은 영 | 1  | 피켓 준비, 내, 외국인에게 인터뷰 요청  |
| 5  | 한 성 경 | 1  | 준비물 준비, 사진 정리, 촬영 담당    |

☞ 변경 후

| 순번 | 성 명   | 학년 | 동아리(팀) 내 역할             |
|----|-------|----|-------------------------|
| 1  | 한 유 정 | 1  | 사진 정리 담당, 독도 관련 서적 설명   |
| 2  | 강 다 술 | 1  | 카메라 촬영 담당, 내용 확인 퀴즈 담당  |
| 3  | 안 서 경 | 1  | 계획 세우기, 내, 외국인에게 인터뷰 요청 |
| 4  | 장 은 영 | 1  | 피켓 준비, 내, 외국인에게 인터뷰 요청  |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독도를 사수하라! 100일간의 독도 홍보 및 체험 활동

- 주제 선정 이유 :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 등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결방안을 찾고자 활동 주제를 정하게 되었음. 우리 스스로가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논리적으로 명분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함.

### ○ 활동 기간 : 2018년 5월 11일(금) ~ 2018년 8월 9일(목)

### ○ 추진 방법 : 교내·외와 독도·울릉도 탐방을 통한 독도 알리기 캠페인 활동 전개

### ○ 활동 내용 ☞ 교내 활동

| 날 짜                         | 독도체험 활동 사항                                     | 활동 장소     | 세부 내용  |
|-----------------------------|--|-----------|--|
| 05. 18(금),<br>해외 펜팔<br>(수시) | 독도의 가치 알리기, 세계 여러 나라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홍보, 해외 펜팔 | 교내 신의관 주변 | 1) 독도에 가치에 대한 내용을 피켓으로 제작함.<br>2)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피켓을 토대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함.<br>3) 독도를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설명함.<br>4) 제작한 피켓을 바탕으로 교내 여러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림.<br>5) 독도 관련 제작한 피켓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고 오답 시 설명함.<br>6) 해외 펜팔 친구들과 대화 도중 독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민감한 외교 문제를 설명하도록 노력함.<br>7) 독도를 모르는 외국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시킴.<br>8) 펜팔로 독도를 알리는 도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움. |



교내 독도 홍보 캠페인 및 해외 펜팔 화면 캡처 화면

○ 활동 내용 ➡ 교외 활동

| 날 짜        | 독도체험 활동 사항  | 활동 장소                           | 세부 내용   |
|------------|---|---------------------------------|---|
| 05. 13.(일) | 독도의 가치 알리기,<br>독도 교육 주간 알리기,<br>다른 나라에서 불리는<br>다양한 독도의 이름 알리기 | 서울 이태원<br>거리                    | 1) 일반인과 외국인들에게 독도의 가치를 설명함.<br>2) 외국인에게 영어, 중국어로 설명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실력이 향상 됨.<br>3) 거리 캠페인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림.                        |
| 06. 03.(일) |   | 서울 경복궁,<br>인사동 거리,<br>국립 민속 박물관 | 4) 알려 준 내용을 퀴즈로 내고 모르는 부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함.<br>5) 독도에 가치에 대한 내용을 피켓으로 제작함.<br>6)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피켓을 토대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함.                        |
| 07. 24.(화) |   | 독도박물관                           | 7) 독도를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설명함.<br>8) 제작한 피켓을 바탕으로 여러 장소에서 내·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림.<br>9) 우리부터라도 독도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자 독도 관련 된 곳에 방문하여 학습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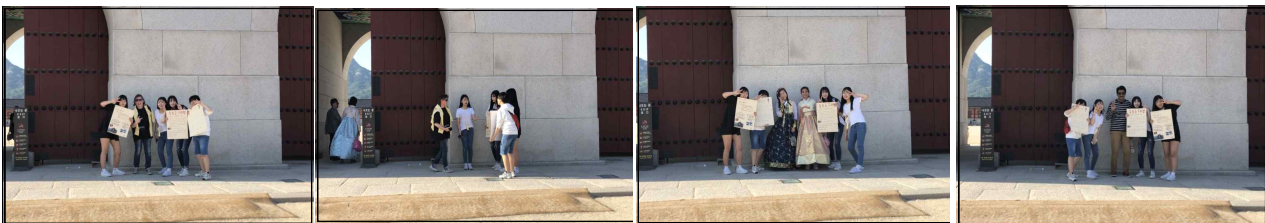




이태원 거리 내·외국인 대상 독도 역사 알리기 캠페인 활동사진



인사동 거리 내·외국인 대상 독도 역사 알리기 캠페인 활동사진



경복궁 내·외국인 대상 독도 역사 알리기 캠페인 활동사진



국립 민속 박물관 내·외국인 대상 독도 알리기 캠페인 활동사진



독도 체험관 체험관 방문 활동사진



○ 활동 내용 ➡ 독도·울릉도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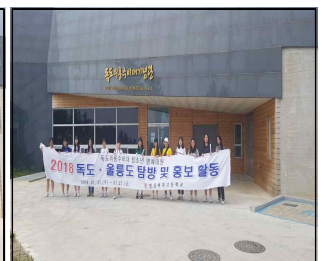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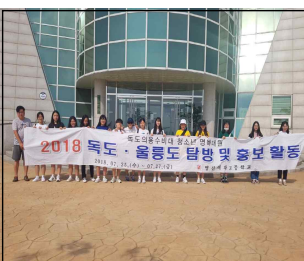
| 날 짜        | 독도체험 활동 사항 | 활동 장소                  | 세부 내용  |
|------------|------------|------------------------|--|
| 07. 25.(수) | 독도·울릉도 탐방  | 울릉도 일대                 | 1)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플래시 몹을 연습함<br>2) 독도와 울릉도 및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래에 맞추어 플래시 몹을 함. |
| 07. 26.(목) |            | 울릉도 일대 및 독도            |  |
| 07. 27.(금) |            |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및 안용복 기념관 |  |



독도·울릉도 탐방 첫째 날



독도·울릉도 탐방 둘째 날



독도·울릉도 탐방 셋째 날

## ○ 활동 내용 📖 독도·울릉도 탐방 소감문

강릉에서부터 약 3~4 시간 동안 파도를 따라 울릉이는 선박을 타고 도착한 울릉도는 청량하고 화창한 하늘 아래 바다냄새와 다채로운 풍경이 어우러져 변함없는 매력을 보이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빛을 쬌며 무더운 바람을 맞을 때는 얼마 움직이지 않아도 자꾸 땀이 나는 탓에 힘이 들었지만 울릉도였기에 기분은 왠지 모를 반가움이 들어 괜히 설레고 좋았던 것 같다.

울릉도에 도착한 첫째 날부터 Near Korea 동아리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울릉도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는, 당연히 나리 분지였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미 숙지된 배경 지식의 유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나리 분지'라는 이름만 술하게 들어봤지, 이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었던 우리한테 나리 분지가 주는 느낌은 그저 신기한 지형을 보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생기는 흥미와 약간의 호기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마주하게 된 '나리 분지'는 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머물던 지식에 생기가 더해져 더욱 유익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 날의 나리 분지는 아마 내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져 영원히 잊지 못할 풍경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붉은 노을로 물든 하늘을 배경 삼아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던 나리 분지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채, 우리는 어느새 다가온 울릉도에서의 첫 번째 밤을 기분 좋게 보내게 되었다.

울릉도에 온 지 벌써 하루가 지나가고 두 번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힘겹게 눈을 뜨고 나갈 준비를 해서 그런지, 아침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눈꺼풀은 여전히 무거웠고 몸은 졸린 기운이 가시지를 않는 듯 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일정을 위해 출발한 버스 안에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행히도 아침 식사를 할 때보다는 몸이 개운해지며 훨씬 더 가뿐해진 느낌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온 몸을 스치는 무더운 바람에 잠시 얼굴을 찡그리기는 했으나, 곧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봉래 폭포로 향하는 산길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입구부터 시작해 올라갈수록 점점 가팔라지는 산길과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계속 가쁜 숨이 내쉬어졌다. 그래도 울창하고 푸르른 나무들을 눈에 담고 옆의 냇가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완전한 자연을 만끽하는 재미가 있었기에 고단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의 경쾌한 자연과 풍경으로 그나마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고난을 견뎌낸 끝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봉래 폭포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 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서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봉래폭포는 내게 주위의 푸른 풀, 나무들과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시원함을 선사해주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옛 속담이 딱 이 상황에 알맞은 말인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동안 어두워졌던 표정이 봉래 폭포에 도착한 이후로 조금씩 펴지는가 싶더니, 이내 멍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꽤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폭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대로 내려가면 이 순간의 봉래 폭포의 후련하고 멋진 경치를 놓치게 될까봐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 Near Korea 동아리 학생들은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전에 봉래 폭포 앞으로 모여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이때의 봉래 폭포에서의 선선한 추억을 머리와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기기로 했다. 봉래 폭포의 경치를 아쉽게 뒤로 하며 우리는 다시 산길을 내려갔다. 확실히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게 힘도 별로 들지 않고 이동하기에 수월해서 산길을 오를 때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되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날씨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흐르는 땀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아예 벗어나 버스가 주차되어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직전에 산의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풍혈, 즉 천연 에어컨이라고 불릴 만큼 서늘한 곳을 들르게 되었다. 산기슭이나 시냇가 같은 곳에서 여름이면 바람이 늘 불어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을 뜻하는 이 '풍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무척이나 시원해서, 과연 천연 에어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덕분에 우리는 땀에 젖고 더위에 찌든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식힐 수 있었고, 이전에 비해 약간은 보송보송해진 채 버스가 주차된 곳까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봉래 폭포를 다녀온 후, 다른 곳들을 몇 번 더 둘러보다가 드디어 점심 식사 시간을 맞이했다. 아무래도 다소 고단했던 일정으로 우리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려온 것 마냥 모두들 들뜬 눈치였다. 점심 식사로 나온 산채 비빔밥은 열심히 움직이며 땀을 흘린 뒤 바라던 끝에 먹게 된 밥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미각이 즐거워 만족스러웠던 점심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나서 우리는 가깝게 위치한 숙소에서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 동안 독도에 갈 준비를 하며 독도로 가기 위해 타야 할 배를 기다렸다. 독도로 가는 배를 탄 지 약 2시간 쯤 지났을까, 선박 내 여러 군데에 있던 TV에서 독도에 접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알림이 났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서 독도와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짐을 챙겼다. 아마 이 때만큼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 내의 승객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독도로의 접안이 성공했고, 살짝 출렁이던 배가 완전히 멈춘 후에 선박의 문이 열리며 독도의 밝은 햇살이 선박 내를 비추었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독도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내리자마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감탄사 연발과 동시에 정신없이 독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잠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몹을 준비했다. 플래시 몹 춤을 출 대형을 빠르게 맞추고서 스피커로부터 흘러나오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랫소리에 맞게 열심히 연습했던 대로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춤을 추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에서 이렇게 양손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꼭 움켜쥐고 독도를 위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에 무언가 자부심이 느껴지며 짜릿하고도 벅찬 감정이 온 몸으로 가득 밀려왔다.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그런 값진 기분이었다. 성공리에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몹을 마치고 난 후 남은 짧은 시간에 독도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며 바쁘게 사진을 찍었다. 그날따라 하늘과 바다는 청아한 빛으로 한껏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의 독도는 마치 그림 같이 빼어



난 아름다움을 내보이고 있는 중이었다. 더위 따위는 단번에 잊을 만큼 너무나 멋진 모습이어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이 훌륭한 풍경을 오롯하게 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나도 모르게 애절한 정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게 독도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독도에서의 사진을 열렬히 남기고 있을 때, 아주 아쉬운 소리가 독도에 울려 퍼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 짧고도 모자란 30분간의 탐방 시간이 벌써 끝나버려서 이제 승객 분들이 전부 탑승해야 함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다시 선박에 오르는 그 순간에도 내심 아쉽고 섭섭한 기분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연거푸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독도를 더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선박에 올라타서 독도와 의 짧지만 뜻깊었던 만남을 아쉽게 뒤로 한 채 독도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날을 저마다 속으로 고대하며 말이다. 그리고 독도로 가는 일정을 끝으로 무더웠지만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선물해준 울릉도에서의 두 번째 여름밤도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부드럽게 지나갔다.

울릉도에서 맞이한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기상을 했다.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문득 오늘의 이 울릉도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다가도 사뭇 서글퍼졌다.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타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살며시 풋잡에 들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 아직 졸음기에 짓눌린 눈을 비비며 버스에서 내렸더니, 눈앞에 곧장 보이는 곳은 안용복 기념관이었다. 우리는 안용복 기념관에서 언젠가 국사책에서 보아서 이름은 익히 알고 있던 '안용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안용복 기념관은 우리의 영토를 용감하게 지켜내었던 안용복의 눈부신 활약을 포함한 그의 삶, 그에 대해 적힌 역사 기록물 등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해놓고 있었다. 안용복 기념관의 전시관들을 관람하면서 안용복이 어떤 분이셨는지, 무슨 업적을 세우셨는지 등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알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용복에 관한 사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정보들을 배움으로써 평소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이로 인해 큰 힘과 이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이 안용복 기념관을 통해 안용복이라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인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릴 때 지녀야 할 태도나 자세 등을 본받을 수 있어 상당히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우리는 안용복 기념관에서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했다.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국토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를 비롯하여 독도 관련 정보들을 얻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공간이다. 내가 유독 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인상 깊은 이유는 바로 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구조 때문이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구조는 정말 신기하게도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외형을 따서 최대한 동도, 서도와 닮은 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관리자님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들으며 독도의용수비대 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국토 수호 정신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명예로운 역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열심히 맞서 싸운 그 분들의 드높고 용맹한 수호 정신과 존엄한 애국심을 본받아 나 또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안용복과 독도의용수비대라는 위대한 우리의 영웅들을 머리와 마음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우리는 마지막 날도 역시나 보람찬 일정을 완벽히 소화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전 날의 독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에도 시원섭섭한 작별 인사를 남겼다. 비록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무척이나 어두운 하늘의 꽤 늦은 밤이어서 많이 피로하고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알차면서 후련했다.

아마 우리는 엄청 오랫동안 울릉도에서 보낸 이 각별하고도 소중한 날들을 두고두고 간직하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천천히 개척하며 나아갈 것이다.

### ○ 제출 자료 목록

| 순번 | 자 료 명         | 자료 형태 | 간략한 내용 소개   |
|----|---------------|-------|---|
| 1  | 독도 동아리 활동 요약서 | 요약서   | 독도를 사수하라. 100일간의 독도 홍보 및 체험 활동 요약본                    |
| 2  | 활동 보고서        | 보고서   | “독도를 사수하라. 100일간의 독도 홍보 및 체험 활동” 주제로 한 독도 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
| 3  | UCC           | 영상물   |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추어 독도 탐방 플래시 몹 UCC 제작물                  |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성과

- 1)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Near Korea 동아리 부원들이 독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독도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활동이 되었음.
- 2) 독도 교육 주간을 맞아 학교에서도 독도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느 정도 관심이 쌓여진 후라서 아이들 모두 즐겁게 캠페인에 참여 함.
- 3)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끼리 퀴즈의 답을 서로 공유하며 독도에 관련해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 4) 외국인 친구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쉽고 체계적인 시나리오와 논리적인 근거 자료 수집 능력 등이 향상되었음.
- 5) 학생들이 노래를 통해 독도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반응이 많았음.

- 6) 동아리 내부에서만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같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좋았음.
- 7) 독도 플래시 몹을 연습하면서 가사를 통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
- 8) 학생들이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답변하는 과정이 즐거웠음.
- 9) 우리의 활동에 대해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것에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음.
- 10)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영어 선생님들께서 해외 펜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음.
- 11) 이번 기회를 통해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음.
- 12)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얻게 되었고, 애국심과 더불어 사명감을 갖게 되었음.
- 13) 우리의 활동에 대해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것에 Near Korea 동아리 일원으로서 성취감을 느꼈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

○ 향후 계획 📌 독도 홍보 활동 및 탐방 사진 전시회

| 날 짜   | 독도체험 활동 사항                                       | 활동 장소                             | 세부 내용  |
|---|--|-----------------------------------|--|
| 08.15.(수),<br>10.25(목)                            | 8.15 광복절<br>73주년 기념행사,<br>독도의 날                  | 서울 광화문<br>일대,<br>교내 체육관,<br>운동장   | 1)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8.15 광복절 73주년 기념행사 실시 예정<br>2) 교내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 플래시 몹을 전교생이 함께 운동장에 모여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념행사 실시 예정<br>3) 전교생(1, 2학년 희망학생)이 마음을 합하여 플래시 몹을 완성할 예정.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09. 01(토)<br>09. 29(토)<br>10. 03(수),<br>12. 13(목) | 독도를 사수하라!<br>100일간의 체험 활동<br>및 독도 홍보활동<br>사진 전시회 | 부평 공원,<br>마장 공원,<br>인천 대공원,<br>교내 | 1) 인천 시민들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활동사진 및 독도 역사 사진을 토대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 홍보예정.<br>2)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계기 마련.<br>3) 동아리 활동 내용을 전시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016, 2017년도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 기념행사 활동사진



2017년도 인천 대공원 인천시민 대상 독도 알리기 홍보 활동사진



2017년도 인천 평생학습관 초청 인천시민 대상 독도 알리기 사진 전시회



2017년도 교내 독도 알리기 홍보 활동사진 전시회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 동아리(팀)원 | 느 낀 점  |
|---------|--|
| 한 유 정   | Near Korea 동아리를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평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독도에 대해 해외 펜팔과 독도 알리기 캠페인, 독도 플래시 몹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독도에 많은 관심이 생겼음. 독도를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에 더욱 뜻깊고 설레었음. 특히 독도에서 플래시 몹을 위해 많은 연습과정을 통해 동아리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음. 독도를 알리는 활동들이 뿌듯했음.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과 안용복 기념관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 독도에 도착해서 독도의 풍경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웠고 독도를 지켜주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을 보니 감사함과 뭉클한 마음이 들었음. 독도를 직접 다녀오니 영광스러웠고 100일간의 활동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고, 독도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며 애국심에 다시 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
| 강 다 솔   | 100일간의 독도 체험 활동은 나에게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름다운 독도를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음.  |
| 안 서 경   | Near Korea 동아리 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나 자신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100일간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계속하며 내·외국인이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됨. 살면서 한 번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알려진 독도를 한 번에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 되었고, 직접 독도 땅에서 플래시 몹을 추고 독도 경비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러웠고 감사했음.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방문하여 좀 더 오래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
| 장 은 영   | Near Korea 동아리에서 독도의용수비대 협력 학교로 뽑혀 2박3일로 독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분이 좋았음. 친구들과 함께여서 기분은 더 배로 좋았고 설레 임으로 가득 했음. 울릉도 및 독도 탐방을 가기 전에 우리는 독도를 잘 모르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음. 100일간 독도 체험 활동 속에 경복궁, 이태원, 인사동, 여러 박물관들   |



을 다니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음. 이런 활동 등을 통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진 거 같아서 뿌듯했음. 우리는 울릉도에 도착하고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는 독도 접안 성공!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까?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새로웠고 그동안 준비한 플래시 몹을 추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내가 그 기회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했음.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울릉도로 돌아와 밤 바다를 보며 많은 추억을 쌓았음. 마지막 날에는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과 안용복 기념관에 가 독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고 울릉도 유명 음식인 따개비 칼국수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음. 그렇게 울릉도 및 독도 탐방 2박3일이 지나고 집에 도착해서 몸이 정말 피곤했지만 뜻깊었던 시간이었음. 나부터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함.

## 5. 건의 사항

### ○ 결과물 제한기한의 변경

- 여름 방학이 짧아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 작성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9월 중순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음.